

##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 방안\*

김순자\*\*

### 국문 요약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다. 이러한 제주어가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학계와 행정기관, 시민단체, 연구자, 뜻있는 도민 등을 중심으로 제주어 보전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은 부족한 상태다.

유네스코도 2010년 12월 8일 제주어를 인도의 코로(KORO)어와 함께 ‘사라지는 언어’ 5단계 가운데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하였다. 유네스코의 이런 진단이 내려진 이후 행정에서는 ‘제주어연구소’ 설립 방침을 밝히고, 교육 당국에서는 제주어 교육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도 제주어 보전을 위한 지면과 방송 시간을 늘리는 등 제주어 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각종 상품과 상호 이름으로 제주어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어 보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어의 체계적인 조사와

---

\* 이 논문은 ‘2011년 제주학회 제35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제주대 강사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일상생활에서 제주어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제주어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어 교사 양성과 연구자 육성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연구자와 교사 양성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주어 기금'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깃는 문화의 정수인 제주어 보전은 제주어 정책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 당국, 그리고 제주도민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주제어: 제주어, 보전과 활용, 유네스코, 위기의 언어, 제주어 채록, 제주어 기금**

## I. 들어가며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sup>1)</sup>

이런 제주어가 국가의 세계화 정책과 표준어 정책, 생활환경 등의 변화 등에 말미암아 빠르게 소멸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 언어가 사라지고 변모한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일이 흔들리고 문화유산도 아울러 변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도 이런 점에 주목하여 제주어를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진단하였다. 유네스코의 이런 진단이 아니더라도 제주어의 언어 환경 속에서 '전래적인 제주어'는 빠르게 소멸되거나 소멸

---

1) 제주어 정의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조례 제719호) 제2조 정의 부문을 그대로 발췌하였다. 제주어 대신 제주방언, 제주도방언, 제주지역어 등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이름을 사용한다.

위기에 놓여 있다. 일찍이 학계와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뜻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제주어 보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제주어 보전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온 것도 위와 궤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어 소멸의 위기감을 인식하여 2007년 9월 27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이하 제주어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어 보전과 활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제주어 보전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가령 제주어 관련 방송이나 제주어 관련 신문 지면이 늘었고, 인터넷 상에서의 제주어 관련 카페와 블로거 운영, 간판이나 상품 이름으로 제주어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제주어를 활용한 문화예술활동도 눈에 띈다. 제주어 말하기 대회도 폭을 넓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어 활용이 늘면서 ‘제주어 표기’가 들쭉날쭉 한다거나 아래아 오남용의 문제까지 나타나 제주어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제주어 표기법’ 제정의 시급함도 노정되었다.

각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주어 보전 정책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각종 학술회의와 논단 등을 통하여 ‘제주어 보전과 활용’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지만<sup>2)</sup>, 아직까지도 ‘제주어 보전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리는 것은 제주어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많다는 증거다.

제주어에 대한 유네스코의 진단이 내려진 이후 제주어 보전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많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잠자던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개정(2011.4.6.)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지난 4월

---

2) ‘제주어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강영봉, 강정희, 문순덕, 오창명 등에 의하여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 등이 만들어지고 행정 당국과 학계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제주어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했지만 아직까지도 제주어 보전과 활용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7일 '제주어 보전 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어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제주어 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sup>3)</sup> 제주인재개발 센터는 공무원 연수 과정에 '제주어 특강'을 집어넣는 등 제주어 보전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2011년 7월 14일 국어문화원 안에 '제주어센터'를 설립하였다.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는 앞으로 제주어 조사 채록, 제주어 자료 발간, 제주어 교육, 제주어 교재 발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어 실태를 점검한 후에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관과 단체·개인 등의 노력을 살펴보고, 보다 나은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 II. 제주어 실태

### 1. 유네스코,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진단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18일 제주어를 인도의 코로(KORO)어와 함께 '사라지는 언어' 5단계 가운데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하였다.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진단한 것은 그만큼 제주의 진중한 자산인 제주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증거다. 또 국제사회가 제주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전 대책의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

3)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2008~2012)을 수립하였다. 이후 제주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이렇다 할 제주어 시책을 내놓지 못했다.

유네스코는 ‘사라지는 언어’를 5단계로 분류한다. 1단계는 ‘취약한 언어’(Vulnerable language)이며, 2단계는 ‘분명히 위기에 처한 언어’(definitely endangered language), 3단계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severely endangered language), 4단계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5단계 ‘소멸한 언어’(extinct language)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제주어는 소멸 위기의 언어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하여 제주어 보전의 화급함을 알리고 있다.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하기까지는 △전문가의 현장 방문 및 답사(인터뷰 및 자료 수집) △한국어를 전공하는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 △각 지역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UNESCO 언어 전문가와 3개월 이상의 토론 과정(이메일, 면대면 만남 등)을 거쳤다.<sup>4)</sup> 또 유네스코의 ‘위기의 언어’ 판단 기준 9가지를 충족해야만 한다.<sup>5)</sup>

- 4) 제주어의 유네스코 등록 과정에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역할이 컸다. 유네스코 등록 과정을 보면, 2010년 2월 유네스코 아프리카 담당 독일인 Matthias Brenzinger 교수가 제주어 조사차 제주를 방문하고 싶다는 연락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해왔다. 그해 3월에 Matthias 교수가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어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Matthias 교수에게 제주어 관련 자료(『제주어사전』, 『제주 지역어 생태지수 조사보고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등)를 전달하였다. 또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주어 단체 활동(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방언연구회, (사)제주어보존회 등), 제주어 교육 자료, 제주어 조례 제정 이후의 제주어 연구 업적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냈다. 제주어 자료 영역(英譯)과 Matthias 교수와의 서신 연락은 주로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양창용 교수가 맡았고, 자료 준비와 인터뷰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담당하였다. 이런 과정은 8월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유네스코에서는 3개월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12월 8일 유네스코 소멸위기의 언어로 등록한 것이다.
- 5) 유네스코의 위기 언어 판단 기준을 보면 첫째, 세대 간의 언어 전승, 둘째, 화자의 절대 수, 셋째, 전체 인구 대비 해당 언어 구사자 비율, 넷째, 언어 사용 분야의 변화, 다섯째, 새로운 영역, 매체에 (해당언어를 사용하여) 반응하기, 여섯째, 언어 교육과 읽고-쓰기 자료 사용 여부, 일곱째 (해당 언어에 대한) 공식적인 지위 부여/사용을 포함한 정부와 해당 기관의 언어에 대한 태도와

유네스코의 진단이 아니어도 제주어가 소멸 위기라는 것은 현장 조사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제주어를 온전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구<sup>6)</sup>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언어 환경과 생활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전래적인 제주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2008)와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2010)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어 보전과 활용 방안’을 내용으로 발표한 많은 글 속에서 ‘제주어의 위기 상황’이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다행한 일은, 제주어가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학계, 시민단체, 언론, 도민 등이 제주어 보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 2. 제주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

‘제주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의 목적은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제주 지역어의 보존 상황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국립국어원·제주대학교국어상담소, 2008: 11). 이 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어 생태 지수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예산 지원으로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수행한 이 조사는 20대·40대·6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가형(농사

---

정책, 여덟째, 자신의 언어에 대한 그 지역 사회 구성원의 태도, 아홉 번째, (해당 언어) 자료의 양과 질 등이다.

6) 제주의 전래적인 언어를 조사할 수 있는 제보자는 적어도 70대 중반 이후여야 한다. 70대 중반 이후의 노인들 가운데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줄 제보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제보자 선정은 현장 조사에서 늘 부딪치는 문제다.

관련 어휘 86개)과 '나'형(제주 문화 관련 90개 어휘)으로 나눠 5개의 인지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질문지 '인지도 항목'

- ①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다.
- ②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 ③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
- ④ 들어보기는 했으나 잘 알지 못한다.
- ⑤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무슨 뜻인지 모른다.

조사는 '가'형 72명, '나'형 240명 등 312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가'형 가운데 인지도 ①항의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다'는 어휘 가운데 50% 이상 사용하는 어휘는 15개(실프다, 검질, 호미, 실르다, 글갱이, 몽케다, 한 걸흐다, 감저, 지슬, 헤싸지다, 우영팻, 수놀다, 소들다, 느실다, 췌다)에 불과하였다. '나'형인 경우는 21개(어디 감수강, 잘 갑서, 기여, 하영, 갑서, 가쿠다, 거리다, 세우리, 이수강, 잘 이십서, 흐꿈, 가키여, 물들다, 물싸다, 고녕이, 강생이, 버물다, 봉그다, 속숨흐다, 찻다, 가주)였다.

인지도 ⑤항인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응답은 '가'형에서 60% 이상 5개 어휘(간전이, 씨와치, 살챗보리, 강돌와리, 개발시리), 70%이상 3개 어휘(광질오리, 청돌와리, 맛시리), 80% 이상 2개 어휘(꼭점은조, 소용시리)였다. '나'형에서도 60% 이상 모른다는 응답이 6개(으남, 새비, 간절귀, 멘주기, 두미에기, 가달석)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이해 못하거나 모르겠다'(인지도 ④, ⑤ 항

목)는 응답이 50% 이상인 경우, ‘가’형이 7개(씨와치, 팡질오리, 살쨍보리, 맛시리, 꺾검은조, 소용시리, 함박쿨), ‘나’형이 2개(공중이, 가달석)였으나, 40대는 ‘가’형이 36개, ‘나’형이 20개, 20대는 ‘가’형이 76개, ‘나’형이 54개였다. 20대인 경우 90% 이상 모르는 어휘는 ‘가’형이 51개, ‘나’형이 29개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제주어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주어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 3. 제주 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제주 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제주어 실태 조사 사업이다. 생태 지수 사업이 60대·40대·20대의 제주어 생태 지수 조사가 목적이라면 이 조사 사업은 10대들의 제주어 사용 실태와 인지도 측정<sup>7)</sup>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문화관광부의 국어책임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이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으로 제주도내 4개 중·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 120개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120개 조사 어휘 가운데 제주도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어휘는 친족 관련 어휘 ‘아방’(아버지, 92.3%)이었고, 가장 모르는 어휘는 농사 관련 어휘 ‘눌’(가리, 99%)이었다.

인지도 항목 가운데 ①항목인 ‘알고 있다’는 응답한 결과를 보면

---

7)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질문지는 ① 어휘의 뜻에 대하여 알고 있다. ② 들어 보긴 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③ 무슨 뜻인지 모른다. 세 개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90~100%의 응답률을 보인 경우는 4개 어휘(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였고, 70% 이상 안다고 응답한 어휘는 11개 어휘로 전체 9.1%에 불과하였다. 반면 전체의 10% 미만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45개 어휘<sup>8)</sup>로 나타나 전래적인 제주어가 빠르게 소멸 되고 있거나 소멸 위기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제주어 사용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아니어도 제주어의 현실은 매우 어둡다. 제주 사람들의 생활환경의 변화로 언어 환경이 바뀐 데다 제주어 사용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전승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부모 고향과 조부모와의 접촉 유무, 제주어 교육 유무와 관련하여서도 조사하였는데, 부모 고향이 제주이며 조부모와의 접촉이 많고,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제주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환경과 교육의 정도가 제주어 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제주어 사용과 함께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제주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Ⅲ. 제주어 보전을 위한 노력

제주어 보전을 위한 노력은 행정과 교육 당국과 언론, 단체,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

8) 70% 이상 인지하고 있는 어휘는 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 컷밥, 호미, 도새기, 강생이, 보말, 하영, 흐뎡 등 11개였다. 싨뜰락, 몰뜰락, 베뜰락, 임댕이, 독지, 즈깁이, 느단손, 흘목, 독무렵, 지성귀, 옷곰, 주멩기, 초신, 멩지웃, 미녕웃, 험벅, 소개, 다리웨, 얼레기, 장물, 상뻬, 화리, 삼방, 통시, 굴묵, 놀, 잠대, 고고리, 7시락, 날레, 심방, 작지, 으남, 고레장비, 상고지, 동곶, 재열, 어욱, 뻥이, 테역, 끽, 부루, 난시, 푸끄다, 미룻.

## 1. 행정의 노력

### 1)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9월 27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조례 제280호)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협약하여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제주어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그 이후 제주어와 관련해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12월 8일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심각하게 소멸위기에 처한 언어’로 진단하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2011.4.6.)한 후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네스코의 진단 이후에 제주어 조례에 따라 ‘제주어 보전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어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의 계기는 2006년 4월 18일 국립국어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이 제주지역어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공동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제주어에 대한 언어학적, 민속학적 조사를 함께 펼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협정이 도화선이 되어 제주도내 언론 기관은 물론 여러 단체에서도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강영봉, 2007: 157). 이후 ‘제주어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 시민사회단체 등 10개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

9) 이 정책심포지엄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가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옥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의원,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제주도중등국어교육연구회, (재)제주 문화예술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

‘제주어 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이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발의로 2007년 9월 7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이 수정 가결, 그해 9월 1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9월 27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2011년 4월 6일 개정되었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튿날인 4월 7일에는 ‘제주어 보전육성위원회’가 꾸려졌다.

## 2)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 수립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2008~2012)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협약한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연구 업무 협약>에 따라 수립되었다.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2007년 9월 27일 제정. 조례 제280호) 제4조에 따른 5년마다 수립하는 제주어 발전과 보전에 대한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7개의 추진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sup>10)</sup> ‘제주어 조례’는 5년마다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2년마다 제주어 보전과 전승에 관한

---

별자치도공공성강화 및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였다.

- 10)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에는 7개의 추진과제와 추진과제별 세부과제로 이루어졌다. 추진과제별로 세부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주어 능력 증진과 환경 개선: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제주어 관련 사전 발간 등 5과제 ② 제주어 교육: 제주어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5과제 ③ 제주어 선양과 문화유산 발굴: 제주어 경관 환경 조성 등 5과제 ④ 제주어의 관광자원화: 제주어 활용 관광 상품 개발 등 4과제 ⑤ 제주어의 정보화: 제주어 표기 방안 및 대책 강구 등 4과제 ⑥ 제주어 민간활동: 제주어 예술 활동 지원 등 5과제 ⑦ 제주어 발전과 보전: 제주어 자료 조사와 집적 등 5과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렇다 할 제주어 시책을 내놓지 못했다.

### 3) 개정 증보 제주어 사전 발간

제주특별자치도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어 사전인 『제주어사전』을 편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 보강과 오류 수정 등의 요구로 제주어 사전 개정 증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업무 협약에 따라 2년 간의 조사·집필과 1년의 발간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를 위하여 7명의 조사·집필 위원을 꾸리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7년 9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주어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력을 받아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도 1년 더 연장하여 드디어 2009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이 발간되었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는 2만 5350 항목의 표제어가 올라 있고, 새롭게 사진 자료도 제시, 사전 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 4) 제주어 교육 자료 발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매년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 두 가지씩 교육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2007년 『제주인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제주어 교수·학습 자료』(CD 포함), 2008년 『제

주어와 생활』, 2009년 『고녕이 모가지에 방울들락』(초등), 『속담으로 배우는 제주어』(중·고등), 2010년 『개염지영 벵말축』(초등), 『의성어와 의태어로 배우는 제주어』(중·고등)가 있다. 또 세화고등학교 비원연구회는 『정겨운 제주어』(현원필·오영수 편)란 이름으로 교육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교육자료들은 일부 학교에서 재량활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제주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2. 언론과 매체, 사이버 공간에서의 노력

‘제주어 보전’을 위한 노력은 언론의 노력도 크다. 제주MBC의 ‘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광’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밖에도 KBS의 ‘제주어나들이’(캠페인 방송), KCTV의 ‘삼춘 어디 감수광’(주 1회), 제민일보의 ‘제주어 산문’ 연재(주 1회)가 있다. 이밖에도 언론에서 제주어 특집 방송과 지면을 내보내고 있다.

제주어로 부르는 동요대회(KBS제주방송총국), ‘봄의 말, 제주어’(한글날 특집 KBS일요스페셜, 이달의 PD상 수상), ‘사라져가는 제주어, 지금은’(제주MBC 라디오 3부작, 제34회 한국방송대상 지역 다큐상 수상) 등의 행사와 방송 특집물도 제주어 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신문인 제주도정신문에서는 ‘제주어 한마디’(주 1회)를 연재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관지 『교육제주』에서도 ‘제주어 산책’(연 4회)을 연재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도 만만찮다. 다음 카페 ‘아래아 마을’ 운영자인 김익두 씨는 제주어의 아래아를 가상 공간에서 제대로 쓰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카페 ‘아래아마을’은 제주도내에서 일어나는 제주어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김 씨는 누리집

에서 제주어를 사용할 수 있는 폰트 개발을 하고, 자신이 개발한 '제주어 폰트'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그는 또 제주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제주어 누리집'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민일보의 제주어 기획 「어떻게 아방 영 살았져」(2011년 7월 23일 현재 56회 연재)는 김 씨가 개발한 '제주어 폰트'를 활용하여 인터넷 상에서도 아래 아(·) 등 제주어를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제주어에 대한 유네스코의 진단 이후 제주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달라졌다. 제주대학교 학교신문인 제주대신문에서도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2011년 7월 20일 현재 6회)를 연재하고 있으며, CBS제주방송도 주 2회 '제주어 배우기'(2011년 7월 19일 현재 16회 방송) 고정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어 보전과 활용방안 등을 환기하는 '제주어 특집' 기사도 전국의 언론 매체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3. 제주어 보전 활동상 소개

#### 1) 제주어 자료집 발간

제주어 전승을 위한 제주어 자료집 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령 말이 사라진다고 해도 자료집이 만들어지면 문자로나마 제주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선보인 방언자료집은 1947년 서울신문사 출판부에서 나온 석주명<sup>11)</sup>의 『제주도방언집』이 시초다. 이후 박용후의 『제주방언연구』,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연구』, 강영봉의 『제주의 언어』(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XI: 제주방언』,

---

11) 석주명은 『제주도방언집』 외에도 4권의 제주 관련 자료집을 냈다. 이 자료들 또한 제주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제주도의 『제주어사전』 등이 발간되었다.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사전』과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고재환의 『제주도속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9-1, 9-2, 9-3) 제주편과 탐라문화연구원 『제주도설화집성』,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上), 현용준·진성기·현길언 등이 채록한 설화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전통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제주도큰굿자료』, 칠머리당굿보존회가 엮어낸 『제주도무속신화·열두본풀이자료집』도 고갱이 같은 제주어 자료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가 발간하는 학술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두 권의 구술자료집과 무형문화재 생애자료도 있다.

2007년 조례 제정 이후에도 꾸준히 제주어 사전과 자료집이 출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9년에 『개정증보 제주어사전』(표제항 25,350개)을 편찬하였고, 이에 앞서 송상조가 『제주말큰사전』(2007)을 엮어냈다.

제주어 구술 자료집 발간도 활발하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는 『나 육십육 년 물질허멍 이제도록 살안』 등 3권의 구술자료총서를 내었으며, 국립국어원은 『지역어조사보고서』(2005~2010년)와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2007~2010년)를 출간하였다. 이 두 조사를 통하여 국립국어원은 13권(3권은 공편)의 제주어 관련 자료집을 묶었다. 강영봉의 『제주 한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 등 2권의 구술자료총서도 의미있는 자료집이다. 이 구술자료와 어휘자료들은 제주인의 삶과 역사,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제주어를 가려내어 용례와 함께 해설을 단 강영봉 등의 『문학 속의 제주방언』(2010)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물이다.

굿 관련 제주어 자료 발간도 속속 이어졌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는 『동북 정병준택 시왕맞이』(2008) 등 3권의 굿 관련 제주어 자료집을 출간하였다. 제주전통문화연구소의 『제주큰굿』(2010)은 1986년 신춘리 김윤수 심방집의 신굿을 채록한 것을 풀어낸 제주어 자료집이다.

이밖에도 4·3연구소에서 펴낸 제주어로 풀어낸 4·3 구술자료와 한국어연구회의 기관지 『한국어연구』 7호(2010)에 부록으로 소개된 「제주도 언어 자료」<sup>12)</sup>도 귀한 제주어 자료다.

그러나 이들 자료 가운데는 제주어 표기가 들쭉날쭉인데가 해석이 불분명한 것들도 있어 자료를 활용할 때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잘못된 제주어 표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에 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제주어 표기법’ 제정과 함께 제주어의 올바른 표기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sup>13)</sup>

한편 제주어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목록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자료 정리는 ‘사전류 등 어휘자료’, ‘민속자료’, ‘구술자료’, 기타 자료로 분류해서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sup>14)</sup>

- 
- 12) 이 자료는 제주 출신 박철희(서강대 명예교수)가 1956년 <국어사>(담당 이기문) 강좌 시간에 제출했던 리포트다. 그 첫장에 ‘濟州島 言語 資料’라고 제목이 써어 있으며 이기문 선생이 정승철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전해 준 것이다. 이에 정승철 선생이 해제를 쓰고, 제주어 언어 자료와 주석 등을 달아 부록으로 소개하고 있다. 200자 분량 191매이며 30편의 이야기가 전사·정리되어 있다. 「‘제주어 언어 자료’ 주해」라는 이름으로 223-386쪽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
  - 13) 영주어문학회는 2007년 정기학술대회 주제를 ‘제주어, 어떻게 표기할까’로 잡고 ‘제주어 표기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는 영주문학회(2008: 5-51)에 실려 있다.
  - 14) 제주어 자료로 목록화한 것은 제주어 활용에 도움이 될 만한 제주어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사전류 등 어휘집, 제주어 민속자료, 구술생애자료, 기타 자료 등으로 묶었다.



<표 1> 제주어 자료 목록(사전류 등 어휘집)<sup>15)</sup>

자료명	편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제주도방언집	석주명	서울신문사 출판부	1947	
제주방언연구	박용후	동원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소	1960/ 1988	프린트판. 1988년 고려대학교 제주방언연구(자료편)란 이름으로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재출간됨
제주도방언연구: 자료편	현평효	정연사/ 태학사	1962/ 1985	
제주도 사투리	이운금	박문출판사	1965	국판의 2분의 1크기. 39면으로 되어 있는 구어체 자료집
제주의 언어 1	강영봉	제주문화	1994	
한국방언자료집 XI: 제주방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이 자료집은 한국정신문화연구소의 '전국방언조사' 연구사업 결과물임
제주어사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현평효 외	제주도	1995/ 2009	
제주의 언어 2	강영봉	제주문화	1997	제주의 언어 1도 함께 출간됨
제주말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2007	
문학 속의 제주방언	강영봉 · 김동윤 · 김순자	글누림	2010	

15)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제주어 활용자료는 고부자(2007), 강영봉(2007), 문순덕(2008; 2011) 등을 참조하면 된다.

<표 2> 제주어 자료 목록(제주어 민속자료)

자료명	편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제주도 민요	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1958	
남국의 속담	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1959	
제주도민요연구(上)	김영돈	일조각	1965	제주어로 채록한 제주 민요 모음집
남국의 수수께끼	진성기 편저	제주민속연구소	1972	1958년 이후 조사한 수수께끼 자료
남국의 금어연구	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1972	1958년부터 1972년까지 조사한 금어 자료 2002년 『제주도금어연구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재출간됨
남국의 민담	진성기	형설출판사	1976	1956년부터 1962년까지 조사한 민담 자료
남국의 민요	진성기 편저	정음사	1977	제주도민요집에 수록된 1500여 수 가운데 400 수를 뽑아 엮음. 1955~1961년 채록 민요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현용준	신구문화사/각	1980/ 2007	
남국의 무속서사사: 세경본풀이	진성기	정음사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 편	현용준 · 김영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 편	현용준 · 김영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 · 남제주군 편	현용준 · 김영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2002년에 재출간됨

자료명	편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가	현용준 · 현승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한국고전문학전집 29권으로 나눔
제주도무속신화-열두본풀이자료집	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속담사전	고재환	제주도/민속원	1999/2002	
제주도무속과서사무가	장주근	도서출판 역락	2001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2	1994년 동김녕 문순실 대 중당클굼 자료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보고사	2006	
제주도 추는 굿	고광민 · 강정식(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도서출판 피아	2007	고광민이 1984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조천읍 함덕리 고씨 집안에서 행해진 '추는 굿'을 채록 정리한 보고서
제주도 옛말 사전	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2008	1957년부터 1967년까지 채록한 자료 중 『남국의 민요』에서 제외된 자료
동북 정병춘 대 시왕맞이	강정식 · 강소전 · 송정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제주큰굿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1986년 신촌리 김윤수 심방집의 신굿을 채록한 자료
양창보 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표 3> 제주어 자료 목록(구술 생애 자료)

자료명	편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사삼사태로 반죽였어, 반!	오성찬	뿌리깊은나무	1991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여성사분과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무덤에서 살아 나온 4·3 '수형자들	제주4·3연구소	역사비평사	2002	
제주여성의 생애 살았시난 살았주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여성사분과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2006	
전통맥향: 제주여성무형문화제의 생애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여성사분과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2007	
제주 환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	강영봉	태학사	2007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9-1로 나옴. 구술자료를 음성전사한 자료와 표준어 해석, 주석이 달려 있음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 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조성윤·지영임·허호준	선인	2007	
나, 육십육 년 물 질허명 이제도록 살안	김순자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2008	제주시 이호마을 고순여의 구술생애자료.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구술자료총서 1권. 제주어 자료, 표준어 대역, 주석 등으로 구성됨

자료명	편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제주 서귀 호근 지역의 언어와 생활	강영봉	태학사	2009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9-1로 나옴. 구술자료를 음성전사한 자료와 표준어 해석, 주석이 달려 있음
해녀·어부·민속주: 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김순자	글누림	2009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자료 총서 6권. 해녀와 어부, 민속주와 관련한 어휘해설과 용례, 구술 자료가 수록됨
각신 이끄곡 서방은 갈곡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9	제주시 용강마을 권상수의 구술생애자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구술자료총서 2권. 제주어 자료, 표준어 대역, 주석 등으로 구성됨
그늘 속의 4·3	제주4·3 연구소 편	선인	2009	
들각들각 마녕 싸명 우린 늠었주	김순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0	제주시 애월읍 봉성마을 강자숙 생애구술자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구술자료총서 3권. 제주어 자료, 표준어 대역, 주석 등으로 구성됨

<표 4> 제주어 자료 목록(기타 자료)

자료명	편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국문학보 (4~16)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2~2004	학술조사보고서. 사회배경, 방언, 설화, 민요 등으로 구성되었다.
백록어문 (1~24)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2007	학술조사보고서. 사회배경, 방언, 설화, 민요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명	편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제주도부락지 (I ~ IV)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1990, 1991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실시한 학술조사보고서만 따로 묶어 펴낸 제주어 자료집

## 2) 제주어 교육 실시

제주어 보전을 위해서는 제주어 교육이 필수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조사한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가운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제주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어 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제주어 상담을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많은데 이는 학생들의 학교 숙제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세화고등학교와 귀일중학교인 경우는 ‘제주어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에게 제주어를 가르친 바 있다.

이밖에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제주어 바로 알기 강좌’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국어문화학교’에서의 제주어 강좌, 제주지방방법원에서도 제주어 특강이 있었다.

한편 (사)제주어보존회는 2010년부터 연 1회 ‘제주어 선생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원초등학교와 신제주초등학교 등에서도 제주어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어에 대한 유네스코의 ‘소멸 언어’ 진단 이후 제주인재개발센터에서는 ‘제주어 바로 알기’를 주제로 공무원 대상 연수 때 특별강

좌로 제주어 특강을 베풀고 있으며, 탐라도서관은 '2011년 향토문화 학교'에 '제주어로 배우는 제주인의 삶과 문화'(8강좌 18시간, 6~7월 매주 일요일) 강좌를 실시하는 등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앞장서서 제주어 강좌 신설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주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3)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는 제주어를 전승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어 말하기 대회는 출연자들은 물론 학교 교사 등에게 제주어 보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어 말하기 대회는 탐라문화제에서 매년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열리고 있다. 또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와 서귀포문화원이 주관하는 '제주어 말하기 대회'도 열리는데, 이들 대회는 제주어 말하기 대회가 연극적인 요소가 짙어, 분장은 물론 소품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밖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사)제주어보존회, 그리고 각급 학교와 단체 등에서도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열어 제주어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

### 4) 제주어로 창작하기

제주어는 문학, 연극, 음악, 서예 등 문화예술활동의 좋은 재료가 된다. 일찍이 문인들은 문학 작품 속에 제주어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 활동을 해왔다. 김광협이 『돌하루방 어디 감수광』, 고정국의 『지만 울단 장쿨레기』, 김종두의 『사는 게 뭇산디』, 고훈식의 『어글락

다글락』, 김웅철의 『어느 보통 사람이 제주어로 쓴 제주대정의 삶』 등 제주어 (동)시집 출간도 제주어 보전에 한몫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어 창작물 가운데는 제주어 표기에 어긋난 경우도 있어 제주어 표기법 제정과 함께 표기법 교육의 문제까지 도출되고 있다.

또 제주어만을 가지고 창작을 하는가 하면 제주어 연극제가 무대에 올려진다. (사)한글서예사랑모임에서는 매년 한글날 기념으로 '제주어 서예전'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제주말씨학생서예대전'도 열고 있다.

뚜럼 브라더스와 가수 양정원은 일찍이 제주어 전승을 위하여 제주어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민요패 소리왓과 놀이패 한라산도 제주어 민요와 제주어 대사로 연극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탐라문화제에서는 매년 제주어 가요제와 제주어 연극제도 열리고 있다. 이밖에 소리꾼들의 제주민요 공연을 통해서도 제주어는 꾸준히 전승되고 있다. 제주어를 녹여낸 문화예술활동은 무엇보다 감성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제주어 전승의 효과가 있다.

##### 5) 제주어 간판 이름과 상품명으로 활용

제주어의 간판 이름과 상품명은 제주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제주어를 활용한 제주어 간판과 상품 이름은 제주도를 제주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2009년 실시한 '제주지역 간판 문화의 특성화를 위한 제주어 활용방안 컨설팅'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업주들은 제주어 간판으로 영업을 한다면 '영업에 도움이 된다'(48%)는 입장이 '지장이 있을 것'(10%)이라는 입장을 앞서 '제주어 활용 간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어 간판을 접한 일반



인들은 ‘제주어’ 간판이 친근하고 제주색을 드러낼 뿐 아니라 제주 지역문화와 관광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앞으로도 간판과 상품 이름으로 제주어가 더욱더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제주도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제주어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도 제주어 보전을 위하여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주어의 표기가 맞지 않은 경우도 많아 올바른 제주어 전승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제주어 표기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허가한 간판 가운데 제주어 간판은 60개였다. 이 가운데 43.3%인 26개가 잘못된 제주어로 표기하고 있어 제주어 표기법 제정과 함께 올바른 제주어 표기법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판과 상품 이름 가운데 제주어 표기가 잘못된 경우 몇 가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굵은 글씨는 잘못된 표기이며, 괄호 속처럼 표기해야 맞는 표기다).

- 제주어 상호: ㄱ메기, 큰가름, 산새미, 제주물촌, 올레어촌(올레어촌), 물팡식팡(물팡췌팡), 폭낭, 몸국(몸국), 읍데강 농수산(읍데강 농수산), 조근아지망(죽은아지망), 먹들세기(먹돌세기), 삼촌네몸국(삼촌네몸국), 노나머끼(노나머끼), 돌코롬(돌코롬), 몽생이(몽생이), 북도록(북도록), 갯노물(갯노물), 제주올레, 갈웃촌(갈웃촌, 갈웃천), 토담골(토담골), 흑도새기(흑도새기)

- 제주어 상품 이름: 제주마썸, 하르방 제주감귤(하르방 제주감귤), 제주마썸, 몽생이, 아람수과(알암수과), 따라비, 바리메, 영아리, 산도록, 불흔디감귤, 송이, 흔저읍서예

위의 제주어 상호와 상품 이름들을 보면, 제주어의 특징인 아래아(·)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기형의 제주어를 양산해 내고 있다. 간판이나 상품명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 제주어를 전승하겠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상호와 상품명은 기형의 제주어를 양산함은 물론 상호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제주어 상품명 개발과 표기를 위해 행정당국과 연구단체와 기관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 IV. 올바른 제주어 활용을 위한 제언 몇 가지

앞에서도 살폈듯이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깃든 언어유산이다.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지목한 것도 늦었지만 제주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살려 보전하라는 주문인 것 같다.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제주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어는 덜 세련되고 저급한 언어가 아니라 제주의 문화유산이자 한국어의 뿌리를 캘 수 있는 가치 있는 언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어 보전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역사,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

둘째, 사라져가는 제주어 채록 작업이 필요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는 제주어 제보자를 잃고 있다. 제보자 한 명을 잃으면 제주어 박물관 하나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체계적인 제주어 자료를 채록하여 집적함으로써 제주어를 영구히 보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성 자료는 물론이고, 비디오 자료구축도 필요하다.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분야별로 정리하여 '제주의 옷', '제주의 음

식, ‘제주의 집’, ‘제주의 나무’, ‘제주의 새’ 등과 같은 제주어 문고 발간도 할 만하다.

셋째, 제주어의 올바른 전승과 활용을 위해서는 ‘제주어 표기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앞의 상호와 상품 이름에서 보았듯이 제주어를 활용하면서 표기를 들쭉날쭉하게 함으로써 기형의 제주어를 양산하고 있다. 2011년 5월 19일자 제민일보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의 “제주어 표기에 대한 신문사 또는 기자협회 차원의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제주어가) 사용돼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제주어 교육을 할 교사 양성과 연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일선 교사들에 의하면, 제주어 교육을 하려고 해도 제주어를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연구 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주어의 온전한 보전과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제주어 기금’ 설립도 검토할 만하다.

다섯째, 제주어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어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제주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담긴 제주사람들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그 채록 내용을 바탕으로 구어체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제주어 교재 개발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여섯째 제주어를 상호와 상품 이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제주의 관광지 곳곳을 제주어 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제주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주어 보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일상생활에서 표준어와 제주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이중언어 생활을 유도한다. 제주어 보전의 길은 제주어가 일상 속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때 가능한 일이다.

여덟째, 제주어를 문화예술작품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제주어를 문학·음악·연극·서예 등의 예술활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제주어를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제주어 정책을 펼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기관, 그리고 도민 모두가 제주어 보전과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주어연구소가 허명의 기관이 아닌 명실상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여야 한다.

언필칭, 제주어는 제주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깃들어 있는 제주문화의 원형질이다. 제주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에 진배없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보전하고, 제주사람들의 얼이 깃든 제주어를 누대로 전승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참고문헌

- 강영봉, 1994, 『제주의 언어 1』, 제주문화.
- \_\_\_\_\_, 1997, 『제주의 언어 2』, 제주문화.
- \_\_\_\_\_, 2007, 『제주 한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_\_\_\_\_, 2007,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 144-163.
- \_\_\_\_\_, 2008, 「제주어의 관광 상품화」,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방안』, (사)제주국제협의회 외 공편, 오름, 355-372.
- \_\_\_\_\_, 2009, 『제주 서귀 호근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_\_\_\_\_, 2011,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생각한다」, 『삶과 문화』 40(봄), 제주 문화예술재단, 20-25.
- \_\_\_\_\_. 김동윤·김순자, 2010, 『문학 속의 제주방언』, 글누림.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2008, 『동북 정병춘 맥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강정희, 200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 방언의 변화」,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 220-235.
- 고광민·강정식, 2007, 『제주도 추는 곳』,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도서출판 피아.
- 고부자, 2007, 「제주민속연구 현황과 과제」,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 188-212.
- 고재환, 1999/2002, 『제주도속담사전』, 제주도/민속원.
- 김귀배, 2007, 「제주어의 세계적 가치 발굴 추진 전략」,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 166-175.
- 김미진, 2009, 『각신 이끄곡 서방은 갈곡』,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김순자, 2008, 『나, 육십육 년 물질허명 이제도록 살안』,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 \_\_\_\_\_, 2009, 『해녀·어부·민속주: 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 \_\_\_\_\_, 2010, 『들각들각 미녕 싸명 우린 늙엇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_\_\_\_\_, 2011, 「유네스코와 제주어」, 『삶과 문화』 40(봄), 제주문화예술재단, 26-31.
- 김영돈, 1965, 『제주도민요연구(上)』, 일조각.

- 김현선·현용준·강정식, 2006, 『제주도 조상신 본풀이 연구』, 보고서.
- 문무병, 1998, 『제주도무속신화-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 문순덕, 2008, 「제주어, 언제까지 보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하나」,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방안』, (사)제주국제협의회 외 공편, 오름, 390-409.
- \_\_\_\_\_, 2011, 「제주어의 활용과 보존 방안」, 『제주발전포럼』 37(봄), 56-62.
- 박용후, 1960/1988, 『제주방언연구』, 동원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석주명, 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 송상조, 2007, 『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 영주어문학회, 2008, 『영주어문』 15, 5-51.
- 오성찬, 1991, 『사삼사태로 반 죽었어, 반!』, 뿌리깊은나무.
- 이운금, 1965, 『제주도 사투리』, 박문출판사.
- 장주근, 2001,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 정승철, 2010, 「‘제주도 언어 자료’ 해제」, 『한국어연구』 7, 한국어연구회, 211-386.
- 국립국어원·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2008, 『제주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2007, 『백록어문』 1-24.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2~2004, 『국문학보』 4-16.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외, 2009, 『제주지역 간판 문화의 특성화를 위한 제주어 활용방안 컨설팅』.
- \_\_\_\_\_, 2010, 『제주 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1990/1991, 『제주도부락지』 I-IV.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6, 『제주여성의 생애: 살암시단 살앗주』.
- \_\_\_\_\_, 2007, 『전통맥향: 제주여성무형문화재의 생애』.

-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2, 『제주도큰굿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2008~2012).  
 \_\_\_\_\_·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제주큰굿』.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7 제주인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제주어 교수·  
 학습자료』
- 제주4·3연구소 편,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_\_\_\_\_, 2009, 『그들 속의 4·3』, 선인.
- 조성윤·지영임·허호준, 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선인.
- 진성기, 1958, 『제주도 민요』, 제주민속연구소.  
 \_\_\_\_\_, 1959, 『남국의 속담』, 제주민속연구소.  
 \_\_\_\_\_ 편저, 1972, 『남국의 수수께끼』, 제주민속연구소.  
 \_\_\_\_\_, 1976,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_\_\_\_\_ 편저, 1977, 『남국의 민요』, 정음사.  
 \_\_\_\_\_, 1980, 『남국의 무속서사시: 세경본풀이』, 정음사.  
 \_\_\_\_\_,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_\_\_\_\_, 2008, 『제주도 옛말 사전』, 제주민속연구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방언자료집 XI: 제주방언』.
- 현용준, 1980/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각.  
 \_\_\_\_\_·김영돈,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 편』,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 편』,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_\_\_\_\_,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현용준 외, 1986/2002,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_\_\_\_\_·현승환, 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속문화연구소.
- 현평효, 1962/1985, 『제주도방언연구: 자료편』, 정연사/태학사.  
 \_\_\_\_\_ 외, 1995/2009, 『제주어 사전』,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  
 자치도.

Abstract

## How to Preserve and Use Jeju Language

Kim, Soon-Ja\*

Jeju language is traditional language delivering thoughts and feelings of Jeju people but it is endangered nowadays. So academia, administrative agencies, civic organizations, scholars and other interested citizens engage in various preservation projects of Jeju language.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alternatives conserving Jeju language entirely.

UNESCO categorized Jeju language and KORO India language as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which is fourth degree out of five in December 8, 2010. After UNESCO's decision, administrative agencies decided to establish 'Jeju language Institute' and educational authorities implements a policy on Jeju language education. Newspapers and broadcasting also expand their air time and articles. More Jeju language is used for the names of goods and shops. However, we still need more support.

It is important to take a systematic approach in preserving Jeju language and keep educating people Jeju language as a part of life. For this, Jeju language teacher and researcher training is needed. First of all, 'Jeju language funding' is need to be found to raise teachers and researchers. Jeju language preservation is the task for the govern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ducational authorities and even all of us.

---

\* Jeju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Key Words:** Jeju language, Preserve and use, UNESCO,  
Endangered language, Recording Jeju language, Jeju  
language funding

교신: 김순자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E-mail: sj476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1. 7. 25.

수정완료일 2011. 8. 22.

게재확정일 2011. 8. 26.